

# 장흥군, 맞춤형 컨설팅으로 한우 사육기술 '향상' 주력

### 축산경영·한우번식·사양관리·가축질병 등 5개 분야 컨설팅 추진



장흥군은 최근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에 주력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장흥군 한우농가 30여명을 대상으

로 축산경영, 한우번식, 사양관리, 가축질병, 초지사료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사전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축산농가 컨설팅은 올해로 7년차를 맞고 있으며 지역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 추진

될 전망이다.

컨설팅에 참석한 용산면 위성태 농가는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구조개선, 사양 및 질병관리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국립축산과학원과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또한, 현장기술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추후 현지방문을 통한 전문컨설팅을 통하여 당면한 애로기술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은 축산물 수입증가, 사료비 상승,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축산불가역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김종민 기자

#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표고버섯·작두콩 활용 연구

### '면역력 개선 및 천연비타민 소재 개발' 최종 선정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사장 김성)은 산업통상지원부와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표고버섯과 작두콩을 활용한 면역력 개선 및 천연비타민 소재 개발'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소재는 표고버섯과 작두콩 활용한 건강식품이다.

사용되는 표고버섯은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루(柄) 부분으로 인산불 가공 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표고버섯은 항암물질로 알려진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서의 제품화 가능성이 높다.

작두콩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체계적인 성분분석을 통한 이용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성과를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작두콩은 장동면, 장평면 등 관내 북부지역에서 틈새 소득작물로 활발하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이 완성단계에 올라 제품화가 가능하게 되면 지역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표고 재배기술 선진화사업'을 비롯하여 '하수오와 버섯발효물을 이용한 중장년층 건강음료 개발사업', '버섯 및 균사체를 이용한 기능성 쌀원료 개발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59건의 특허를 확보한 후



지역 농가와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실시했다.

제해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장흥군 원목표고의 비교우위와 작두콩 기능성 물질에 대한 최적 추출공정을 규명해 낼 것"이라며, "관련 기술을 통해 지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지역공급·미래성장·정원복합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진도군, 작은영화관 '진도아리랑 시네마' 개관

### 진도읍 동외리 향토문화회관 인근...연중무휴 운영



진도군에 지역주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작은 영화관이 개관했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읍 동외리 향토문화회관 인근에 지난 20일 작은 영화관인 '진도아리랑

시네마' 개관식을 갖고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총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지상 1층, 486㎡ 규모로 건립된 작은 영화관은 2개 관에 전체 98석 규모이다. 1관(3D 전용)은 59석, 2관

(2D 전용)은 39석이다.

관람료는 2D 5,000원, 3D 8,000원으로 대도시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60% 수준으로 설치 추석 오전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진도군에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그동안 영화를 보러 인근 목포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이날 개봉작으로 영화 '육자와 박열'이 무료로 상영되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작은영화관은 농산어촌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작은영화관은 저렴한 관람료를 내고 최신 영화 개봉작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영화 관람을 위해 목포시를 오가던 군민 불편이 해소되고 여가 문화 기회 확대에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여수시, '여수밤바다' 야경에 계절감 입힌다

### 종포해양공원 등 7곳 조명 밝혀

여수시가 '여수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는 야경에 계절감을 입힌다.

시는 하멜등대, 종포밤빛누리, 종포해양공원, 여객선터미널, 이순신광장, 남산동, 소호동등대리 등 7개 지역에 4계절을 대표하는 색으로 조명을 밝힌다.

봄(3~5월)은 '그린', 여름(6~8월)은 '스카이블루', 가을(9~11월)은 '자홍', 겨울(12~2월)은 '오렌지' 색

이다 또 매일 저녁 9시와 매시간 30분마다 플래시 효과, 파노라마 효과 등 이벤트 조명을 5분간 연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경관조명의 연출 색상과 시간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여수밤바다 야경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관조명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 무안군, 성장점 배양 우량종구 농가 공급

무안군은 성장점 배양 우량종구(남도마늘)를 농가에 분양하여 마늘종구 생산에 나섰다. 성장점 배양 마늘이란 마늘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부위(뿌리 뒷부분)의 성장점 조직을 인공 배지에서 배양한 후 식물체를 양성한 것으로 바이러스가 적어 생육이 왕성하고 잎마름병 증상이 적다.

그동안 무안군의 마늘 농가들은 마늘을 자가 채종, 증식하여 매년 반복해서 종구로 사용해 왔고 종구 생산체계를 알 수 없는 의지에서 가져온 씨마늘을 재배하다 보니 마늘종구 퇴화의 문제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수량 감소의 문제가 직면했었다.

이번에 분양된 마늘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파속작물연구실에서 생산된 마늘 조직배양 우량종구 580kg과 작년에 연구팀에서 분양 받은 종구를 일선 농가에서 자가 증식한 마늘 2,840kg이다. 이는 적은 양이지만 우량종구 마늘 보급체계 및 농가 씨마늘 자가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점 마늘은 품위가 월등하여 품종 경신을 원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선호도는 높지만 농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적은 편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완도군, 찜통 더위 속 식중독 예방 총력

### 생선횃집 수족관 물 조사결과 모두 정상 판정

최근 고온 현상과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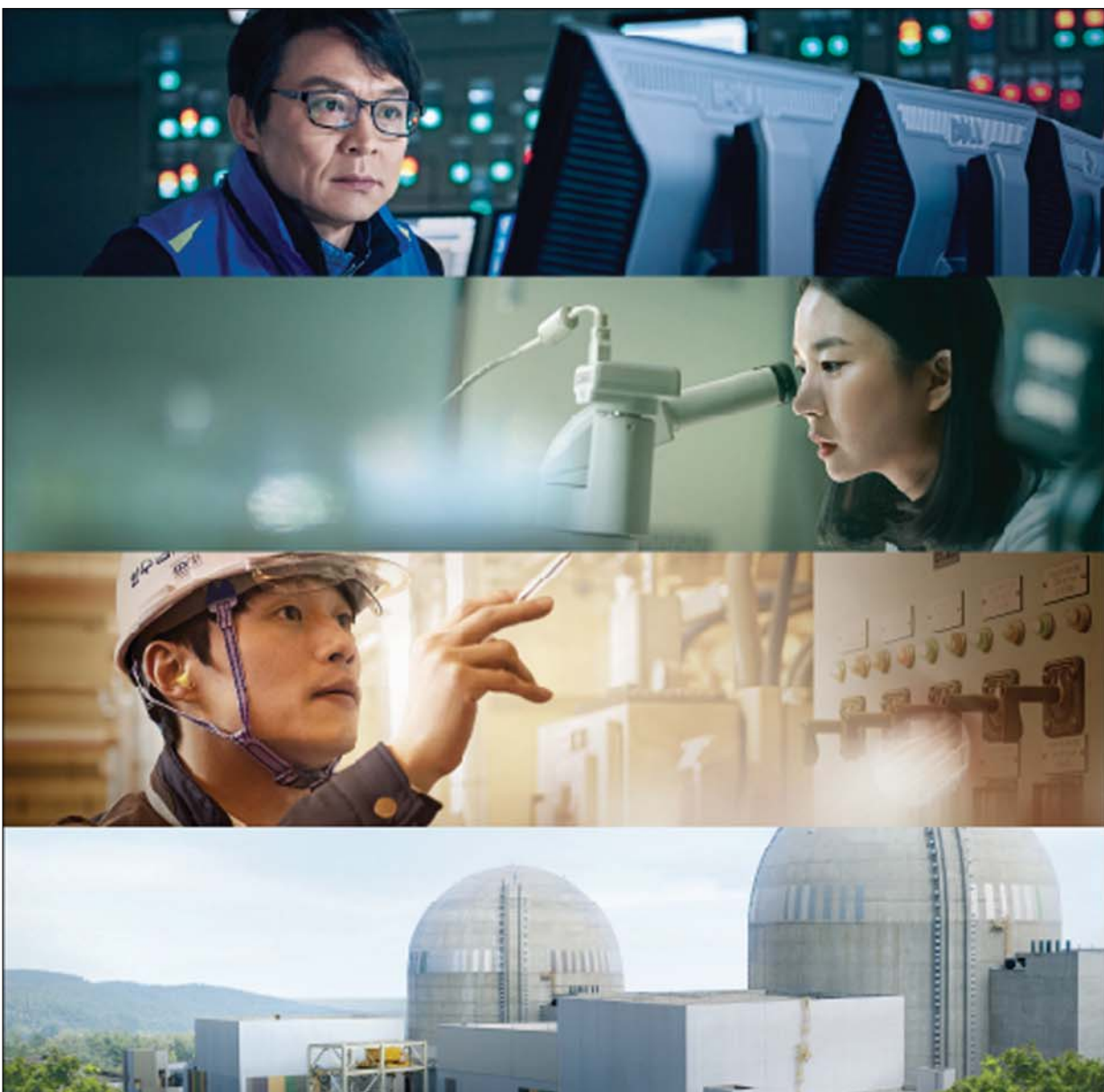
완도군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폭염대비 식중독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식중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신지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고 12일에는 사회복지시설 52개소 급식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식중독 특별관리 기간 동안 대형 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및 생선횃집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 바닷가 주변 생선횃집 수족관물 관리, 어판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장염비브리오 예방 교육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식중독 발생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생선횃집을 대상으로 수족관 물의 식중독 세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